

통권제 182호

2562 2018

12

하이 계 지간 ^離 間 라 기

(

아화 물이야기 안통 면 어때!

(1)

싹볶은 참깨에서 당하께서

🔘 불교총지종

종조법설집

제3장 잠언편 p.216

고품와 낙樂

나무는 비와 바람으로서 성장하나니 비와 바람이 비록 싫다 하겠으나 그로써 자라는 것이며

사람은 고난苦難하여 성공하나니

고난이 없이 즐거움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을 겪는 중에 인격이 완성하느니라.

고락苦樂을 겪는 중에 인격을 가히 알 수 있다.

고를 당해서 잘 인내器畸해야한다.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므로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불교이야기 04

도성제 2 _ 화령정사 살다보면 _ 16

당신의 친구는 안녕하신가요?

_ 이옥경

향유 22

연줄에 매달린 연처럼

_ 강동현

2562 2018

목차

04 불교이야기

08 마중물

10 **계율이야기**

16 **살다보면**

22 향유

26 산책

28 십선성취

32 마음의 등불

36 애견칼럼

40 법향기

46 설화속으로

50 디딤돌

52 차향기

56 독자기고

58 로드를 찾아서

64 거꾸로보기

68 생활속 식물이야기

72 걸망에 담긴 이야기

74 뜻 바루기

76 되짚어보기

78 컬러링 만다라세상

도성제 2 _ 화령정사

모든 존재는 베풀기 위해 있다 _ 명성스님

이간難問하지 말라 _ 법경정사

당신의 친구는 안녕하신가요? _ 이옥경

연줄의 매달린 연처럼 _ 강동현

달_김대곤

삼악도三惡道 _ 덕현 전수

물의 순례 - 그 위대한 여정 _ 이용희

암컷 중성화수술 _ 권도형

총지종을 인생의 동반자로 _ 전혜선

대복과 오리정 구렁이 _ 보현전수

국화 옆에서 _ 지현전수

계절에 어울리며 계절 따라 마시기 좋은 차 _ 김정애

'정각음악제'를 마치고 _ 여순애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2) _ 우연

그녀는 누구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는가(下) _ 박현희

화장실이면 어때! -아디안툼 _ 이태용

볶은 참깨에서 싹이 날까 _ 법일정사

명왕明王과 천신天神 _ 김재동

フトー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12월호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동의하기 힘든 평가를 내린다면,

바로그순간,

당신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그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그 부정적인 말의 위력에 굴복당한 채

그런 존재가 되기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 깨어있는 의식으로써

그 말이 그저 아무 힘도 얻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사실 나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그의 단편적인 관점일 뿐이며,

그 말은 진실도 거짓도 없는 중립적인 에너지일 뿐이다.

그 말이 힘을 가질지 말지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언제나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

별 의미 없이 쉽게 내뱉는 상대방의 말 한 마디에

우리는 언제나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함로써 스스로를 그 말에 자신을 구속시키기를 서슴지 않는다. 화가 나서 홧김에 내뱉은 "재수없게 생겼어"라는 학창시절 친구의 말 한마디를 나이 40이 넘어서까지 붙잡고 실체화하며 구속당한 채 정말 자신을 재수없게 생긴 사람으로 믿어 왔던 분을 보고 구업이라는 업력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새삼 느낀 적이 있다.

말의 힘이란 이와 같다.
자신이 그 말에 힘과 의미를 불어 넣는 순간
그 말은 살아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실체적 에너지로 바뀌고 만다.
언제나 말의 주도권을
굳건히 자기 안에 두고 살라.

- 법상 스님, 목탁소리 중에서

화령 정사 불교총지종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 주교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우연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나 이외의 어떤 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도 아니며 오직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괴로움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괴로움을 초래하는 것은 진리를 모르는 자신의 무명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무명은 번뇌라고도 하는데 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갈애와 그 갈애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분노가 무명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탐진치 삼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뭉뚱그려 한 마디로 갈애라고도 합니다. 중생들의 괴로워 하는 모습을 뭍에 올라온 물고기가 물이 없어 헐떡거리는 모습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곧 갈애입니다.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갈애를 끊기 위해서는 탐진치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탐진치를 직접 다스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탐진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합니다. 우리가 탐심이 일어나거나 진심이 일어날 때 그러한 마음이일어난다는 것을 눈치 채고 그것을 억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마음이 불끈 일어날 때는 자신도 그러한 마음이일어난다는 것을 모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를 들면,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스스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해대거나화가 나서 물건을 팽개치거나 심지어는 상대방을 후려 패기도합니다. 스스로도 그러한 마음이일어날 때에는 도저히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일이 저질러진 다음에는 후회합니다.

우리가 탐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탐진치 자체를 잘 살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스리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억누를 수 있는 평소의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수행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탐진치가 문득 일어날 때 그것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팔정도라는 것은 이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고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갈애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마음의 제어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병이 났을 때 눈에 안약을 넣어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치료합니다. 눈이 아프면 눈을 치료하고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입니다. 그러나 동양의학에서는 눈이 나쁘다고 해서 눈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눈병이생기는 원인이 나쁜 물질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과로나 수면부족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비타민이 부족하거나신장이 나빠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원인을 잘 살펴서 눈병을 치료하는 것이 장기적이고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두통이 나더라도 머리 아픈데 약만 먹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몸의 상태를 살펴서 원인을 치료하면 보다 확실하게 치료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코피를 잘 흘린 적이 있었는데 중세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코로 연결된 어떤 혈관을 전기로 지져야 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피가 뇌에 몰려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계시다가 한방병원에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한의사 말씀이 코피를 잘 흘리는 것은 몸이 약하고 폐에 열이 많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을 조금 먹고 나서는 평생 동안 코피를 흘린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 때 큰 병원의 의사 말을 듣고 혈관을 지졌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양방 의사는 못하고 한방 의사는 우수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전체적으로 관 계가 있고 유기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증요법對經歷 으로서는 충분하 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났을 때에도 그 부위만 살필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부위의 상태와 관련을 지어보고 원인을 밝혀보는 것이 중 요하며 전체적인 체질을 건강하게 함으로써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 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번뇌도 육체적인 병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으로 다 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팔정도는 갈애의 근본이 되는 탐진치를 제어함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그 작용이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 탐심이 일어 나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화가 치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해서 화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탐진치는 서로 관련이 되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전반의 정신적 수준이 향상되어져야 합니다. 탐진치의 어느 하나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제어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놓으면 그 것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탐진치의 제어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고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직접원인이 되는 갈애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가지 번뇌도 함께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장애가 되는 일체의 것을 소멸하여 자유자재의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게 될 때에 갈애도 자연스럽게 다스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팔정도입니다. 열반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하여 마음의 전반적인 향상과 인격의 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된 방법이 바로 이 팔정도인 것입니다. 』

08 124

위드다르마 09

7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목련 존자가 백중을 기해, 어머니를 위해 독경 과 법문을 하고 대중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천상락을 받게 되었지요.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것도 효이지만, 부모님이 잘 못되어 고통 받는 곳에 계신다면 그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도 효입니다.

대중공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에게 올리는 것도 대중공양이요, 스님에게 올리는 것도 대중공양이요, 도반에게 올리는 공양도 대중 공양입니다. 이웃에게 올리는 것도 대중공양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는 나누는 것이 바로 대중공양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대중공양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대중공양을 받으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7년간 굼벵이로 있다가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매미도, 청량감을 공양 올리기 위해 그 짧은 생애를살다 떠납니다.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공양하기 위해 있음을 알아야 해요.

인도에 가면 망고나무가 있어요. 인도는 비가 올 때는 몇 달간 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몇 달간 안 옵니다. 그래서 땅이 척박해요. 그러 한 땅에 망고 씨가 떨어져 뿌리를 박고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자라 많은 사람과 짐승에게 그늘을 내려줘 시원한 자리를 만들어줘요. 또 나무에서 뭇 새들이 잠을 잡니다. 봄이 되면 꽃 을 피우고, 꿀이 납니다.

열매인 망고는 주린 창자를 채워줍니다. 이처럼 망고나무는 모든 존 재에게 베풀기 위해 있어요.

부처님께서 각고 끝에 성불을 하시고 난 연후에 45년간 중생을 위해 망고 노릇을 하시다가 떠나신 겁니다. ▲





이간離問

이간빼은 네 가지의 구업대 가운데 하나다. 대개 양설배과 함께 쓰인다. 그러나 이간 보다 양설배하이란 말이 더 많이 쓰인다.

이간은 양설의 결과이고 양설은 이간의 원인이다. 양설이 이간의 중요한 조건인 셈이다. 양쪽을 이간시키는 말이므로 양설어#5#이고 이간어###이다. 이를 붙여서 이간양설이라 하는 것이다. 이간양설에 대해 『사분율』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육군비구가 이 사람의 말을 저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병어뼈를 이곳에 와서 말하였다. 이를 잠시도 쉴 틈 없이 하였으므로 대중 가운데 다투는 일이 없었는데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다툼이일어나면 끝이 없었다.

병어麻은 병풍 뒤에 숨어서 하는 얘기로, 이 사람이 욕하는 것을 당사자인 저 사람에게 가서 일러바치는 것을 말한다. 이간양설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를 금하는 계율을 정하신다. 이를 이간계때때 또는 양설계때하라 한다. 율장마다 용어의 차이를 보인다. 『근본유부율』, 『팔리율』, 『범문계경』에서는 '이간'이라 하였고, 『사분율』, 『오분율』, 『마하승기율』에서는 '양설'이라 하였다. 양설이나 이간의 구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간계離間戒의 인연담

이간하지 말라는 이간계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근본유부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육군비구가 이쪽 저쪽에 다니면서 두 가지 말로 이간질하여 대중이 항상 아무 것도 아닌 일로 시비에 휘말려 조용한 날이 없었다. 이에 부처님은 대중들에게 선어라는 사자와 선박이라는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옛날 어느 시골에 선아라는 사자와 선박이라는 호랑이가 살았는데 아간이라는 소 한 마리가 사자와 호랑이가 좋은 벗이 되어 서로 돕고 잘 지내는 것을 괜히 시기 질투하며, 자신의 먹이가 없어질까 염려하여 거짓말로 이간질을 하였다.

"선아님! 선박이 말하기를, '나의 생김새와 태어난 곳과 강대한 체력은 모두 훌륭하다. 그러나 선아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였답니다." 아가이 이와 같이 노래하자 이를 듣고 선아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예, 그것은 선박님이 선아님을 업신여겨 부른 노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선박에게 가서도 같은 노래를 불렀다.

"선박님! 선아가 말하기를, 나의 생김새와 태어난 곳과 강대한 체력

은 모두 훌륭하다. 그러나 선박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였답니다." 이 노래에 선박이 물었다.

"너는 어째서 그런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냐?"

"그 소리는 선아가 늘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선박님께 서 먹다 남은 음식을 먹고 지내는 신세를 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다소 불쾌하였으나 만나 보기 전에는 알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서로 가슴을 꾹 억누르고 있었다. 수일이지나 이들이 서로 만나게 되어 선아가 사실을 묻자 선박은 아니라고하며, '이는 야간이 우리 사이를 떼어 놓기를 위해 조작한 것이다'하고다음과 같이 노래를 하였다.

'나의 생김새와 태어난 곳과 강대한 체력은 모두 훌륭하다. 그러나 선아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 이익 없는 소리를 받아들여 이간하는 말을 믿는다면 친분은 저절로 파괴되어 마 침내 원수가 되고 만다오. 그러나 만일 참다운 사실을 알면 성내는 마 음은 사라지나니 지금에 와서 지성껏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얻게 된 다오. 지금부터 시작하여 나쁜 감정을 없애버리되 우리를 싸우게 하 려던 이 놈 야간을 죽여 없애 버리리라.'

노래를 마치고 그들은 힘을 합쳐 야간을 죽여 버리고 예전보다 더 친한 벗이 되었다.」

14 | 12월

부처님은 이와 같이 설화를 마치고 말씀하기를, "짐승도 자신의 피해와 불화자 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그러나 오해를 사실로 인증ळळ한 뒤에는 서로 풀어질 수 있으며, 거짓임을 이미 확신하면 오해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므로 육군비구는 야간과 같은 짓을 하면 제 목숨을 자신이 죽이는 야간과 같게 되리니 주의하라."하시고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 비구니가 이간 질을 하면 바일제이니라."

양쪽 뿐만 아니라 한 쪽에 가서 말하는 것도 이간에 포함된다. 나쁜 감정을 일으켜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얘기를 저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한다. 구업□‡을 짓는 일이다. 이간의 해≢는 자신에게 먼저 돌아간다. 남의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말자. ↓

地上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땅바닥에 누워 있더라도 편안하지만

분수를 모르는 자는 극락에 있더라도 뜻에 맞지 않을 것이며,

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는 비록 재산이 많더라도 그는 곧 가난한 사람이요.

자기의 분을 지키는 자는 설사 가난하더라도 부자와 다를 바 없다.

- 불유교경 -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12월호

다음 호에서는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안녕하신가요?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 1984년 KBS 라디오드라마당선
-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반 백 년 지기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며 그녀가 보일 듯 말 듯 미소를 짓는다. 웃음으로도 감추지 못한 쓸쓸한 표정에서 쓰라린 마음이 묻어난다. 식어버린 지 오래인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오래도록 먼 산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이 창밖, 앙상한 빈 가지로 비를 맞고 있는 가을 나무처럼 처연해 보인다. 코흘리개 시절부터 함께해 온오랜 친구와의 결별이라…. 게다가 얼마 전에 그럴듯한 명분에 밀려 권고사직까지 당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그 친구는 늘 자신이 먼저라야 했어. 가장 돋보여야 했고, 최고의 칭찬을 들어야 했지. 가장 예쁘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멋있다는 말을 원했어. 빼어난 미모는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예쁜 편이기도 했어. 키도크고, 날씬하고, 옷도 잘 입고. 수십수백만 원씩 쏟아부어가며 관리받으니까 피부도 탱탱하고, 철따라 유행 따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지. 그것도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만. 명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싫대. 그러니 당연히 눈에 띄지. 하고 싶은 거다 하니까.

부러워 죽는 여자들에, 어떻게 말이라도 한 번 건네 볼까 기웃거리는 남자들에…. 그 친구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그걸 즐겼지. 문제는…, 누 구나 꼭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누구든 자기보다 나으면 안 돼. 누구나 다 자기 밑이라야 하는 거지. 온통 자기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면 난리가 나. 자기에게 찬사를 바치지 않는 사람도 용서가 안 되는 거고. 20대 후반? 아니다,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 순하고 착한 친구였는데….

그 순하고 착하던 친구를 변하게 한 게 돈인 것 같다며 그녀가 한숨을 내쉰다. 다 고만고만하게 적당히 가난하던 젊은 시절에는 내 것도 네 것처럼, 네 것도 내 것처럼 아낌없이 나누면서 기쁨과 슬픔은 물론이려니와 상처와 치부까지도 고스란히 내보이고 감싸 안으며 우정의 깊이를 더해 왔다고 한다.

인생은 예측불허다. 명민하다는 소리를 듣던 그녀는 제 털 뽑아 제 구멍에도 박기 어려운 프리랜서 글쟁이가 되었고, 남들 앞에서 말 한마 디도 제대로 못 할 만큼 순진해 터졌던 친구는 장삿길로 접어들었다. 그 장사 자금도 반쯤은 그녀가 원고료를 미리 받아 빌려준 것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수입에, 연로한 부모님과 대학에 다니는 동생을 둘이 나 거두어야 했던 그녀에 비해 친구는 엄청난 장사 수완을 보이며 일취 월장, 하루가 다르게 강해지는 성격만큼이나 두둑한 부를 쌓게 됐다. 거기에 아버지의 유산과 남편의 재력까지 더해졌으니…. 돈의 위력은 친구를 빠른 속도로 변화시켰다. 어느 날 친구가 나한테 짜증을 내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옷이 그것 밖에 없니? 작년 송년회에도 그 옷 입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영* 아들 결혼식 때도 그 옷 입고 왔더니, 어떻게 만날 때마다 그 옷이야? 창피해 죽겠어, 정말.

그런데, 그 옷은 내가 가장 아끼는 옷이야. 더 비싸고, 더 좋은 옷도 있지만 편하니까,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격식을 갖추거나 예의를 차려야할 자리에는 그 옷을 입게 되더라고. 내가 괜찮은데. 내 옷 내가 알아서 입는데 자기가 왜 창피해? 그게 그렇게 사람들 많은 자리에서 바락바락 성질을 내가면서 면박을 줘야할 일인가? 서운하지도 않더라. 처음 있는일도 아니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돼. 그 친구한테 나는 뭘까….

친구가 이재에 능통해지는 동안 그녀는 제법 명망 있는 글쟁이의 반열에 올랐다. 한때는 돋보이는 모습으로 뭇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스포트라이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 빛의 밝기도,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달랐다. 자신에게 주어지던 찬사와는 격이 아주 다른,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던 존경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녀의 모습에서 친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모양이다.

짐작건대, 누가 뭐라든지 소신껏 자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그녀의 면면도 친구로서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작용했을 터. 친구의 주변에는 돈을 빌려 달라거나 강퍅한 성질에 눌린 사람들이 고작이었지만 그녀는 달랐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글을 좋아했고, 글보다 더 그녀를 흠모했다. 예쁘지도, 늘씬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그녀가 자신보다 더 빛날 수 있다니. 상상조차 해 본 적이 없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우정도 본능 다음이다. 열등감이 앞섰다면 친구 아니라그 누구라도 두 주먹을 불끈 쥘 일이다.

작년 가을에 그 친구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 친구가 해야 할 일인데도 여행 일정을 잡고, 여행사를 정하고, 절차를 밟고 비용을 치르는 일까지 죄다 나한테 맡기는 거야. 친구의 부탁이라 여기저기 알아보고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찾아냈지. 같이 간 사람들이 숙소며 음식이며 최고라고 야단들인데 그 친구만 입을 삐쭉하는 거야. 가격이 좀 비싸다! 그러면서. 가장 싼 상품이었는데. 돈도 가장 많고, 나랑 가장 친하다는 친구가.

그러면서도 그 여행이 만족스러웠던지 지난여름에 호주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야. 싫다고 했지, 나는 빼 달라고. 사실, 나는 일본 여행이 그리 탐탁지 않았거든. 틈만 나면 누군가의 흉을 보느라 입에 거품을 무는 거 있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연사흘씩이나 그런 소리 들어 봐. 정말로 귀에 쥐가 나지. 싫더라고. 여행 온 맛도 안 나고, 원색적인 화젯거리도 그렇고. 그래도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나 원래 해외여행 싫어하

잖아. 거기다가 10시간 넘게 비행기 타는 건 더 싫고. 그러니까 나는 빠질게, 그랬거든. 쌩하더라. 미안하다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탁끊는 거야.

그게 4~5개월 전의 일이었단다. 전화는 물론이려니와 단체 카톡 방에서도 친구는 그녀의 대화를 철저히 무시했다.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고, 그녀의 말에 답을 하지도 않았다. 얼마 전, 그녀가 권고사직을 당한 얘기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 다른 친구들이 위로와 격려의 글을 줄줄이 올리는데도 끝내 침묵한 단 한 사람…. 그게 친구였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는 말로 그녀를 다독인다. 너무 애쓰지 말라고. 오랜 친구에게 내침을 당한 그녀에게 자리이타 대체를 정신에 따라 타인을 배려하고, 먼저 베풂으로써 보답을 받는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라는 불가 ###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건 무리다. 부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하지 못한다고 하셨거늘 하물며 한낱범인 #LA에 지나지 않는 우리임에야. 애써 웃음 짓는 그녀의 눈에서 기어코…, 참고 참아 왔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1



승진 발표가 되고 시험 결과 발표를 하는 달에 우리 아파트에 응급 차가 종종 온다. 들리는 소문에는 아내들이 혼절해서 실려 나갔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고 나름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다 가 자기의 기도가 완성되지 않았다 생각해서 그냥 자기의 종교 자체 를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봤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우스갯소리로 나는 어떤 종교든 얼추 다 가 봤고 새로운 종교 하나를 만들 정도라고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은 나 의 정신적인 허함을 달래줄 무엇인가를 찾아다닌 나름 구도의 길이었



다고 지금은 포장하고 있다. 무엇이든 3년은 꾸준히 하는 버릇이 있었 던 까닭에 어떤 종교에서든 열심히 3년을 다녀 보았다. 그런데 몇 해 뒤에 나는 원래의 내 종교로 돌아와 있다. 다른 종교에 대한 폄하를 하 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초에 여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 하고 싶다.

요즘 오래 전에 교류를 하다가 끊어진 사람들과 자주 만난다. 그분들을 십 수 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누구랄 것도 없이 "아… 가만 보자. 너 총지종 다니던 애구나." 하신다. 지금은 애도 아니지만 나를 다 잊으시고도 총지종 다니던 애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 때, 무슨 불공 기간이라고 행사 중에도 법당에서 불공하던 거 기억이 난다." 맞다. 내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었다. 월초불공이면 행사 자체를 안 가야되는데 워크샵이라도 가는 날이 월초불공과 겹치면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가서 불공을 했다. 그 때는 그래야 하는 것인 줄 알았고, 나름 여법하게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 몇 해 동안 그러다가 문득, 그날 해야 할 불공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나는 생각했고, 가끔은 화도 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고, 나자신이 무엇을 위해 기도

를 하고 불공을 하는지 나중에는 길을 잃었다는 생각마저도 들었다.

나는 길을 잃었고, 긴 방황을 했다. 너무 열심히 했었는데 너무 맹목적이었고 너무 아는 것이 없었다. 긴 방황을 하면서 불공을 놓아버렸는데 몇 해 전에서야 내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엄마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자식들을 위해서 불공하셨고, 내 친구들이나 스승님들도 일체 교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 서원당에 앉았을 때 나는 엄청 감동했다. 나 역시 일체 교도를 위해 소리 내어 불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요즘은 불공을 하면서 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바랄 것도 없고 원할 것도 없어서가 아니다. 내 기도는 사실 뭉툭하다. 직설적이지 않다. 내 삶도 그와 같아서 직설적이지 않고 뭉툭하고 두 루뭉술하다. 그렇게 된 것이 나는 무척 감사하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것은 다른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실 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도 세월을 겪어 오면서 알게 되었기에 내 기도의 실패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기도하는 그 순간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내 기도는 이루어지는 기도가 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진심으로 했고 그러면 된 것이라고 생각하니 된 것이라고 말이다. 요즘은 참회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밉던 아버지한테도 참회를 깊이 했고, 덩달아 미웠던 오빠한테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회의 말을 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참회의 말에 서로 울컥했고, 내가 오해한 것을 사과했고,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러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나는 여태 어지러운 걸음을 걸으며 방황을 했지만 결국 연줄에 매달린 연처럼 먼 데까지 갔지만 다시 돌아와 있다. 좀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 집 나가서 고생고생하고 겨우 집에 돌아와서는 내집이 최고인 것을 알게 되는 어리석은 가출 청소년처럼 모든 것이 좋다. 참회를 할 때도 감격하고 회향 서원을 할 때도 감격한다.

행사 때마다 보시를 하려고 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서원당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는 날마다 서원당에 갔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일요일에도 출근하느라 자주 가지 못했다. 이번 달에는 조금 여유를 부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하고 있다.

불공하는데 하루를 다 보내는 삶을 살고 싶다. 남의 불공도 해 주고 동참판에 걸린 이름들을 더 크게 읽어 주고 49일 불공때도 남아서 불 공을 해 드리고 싶다. 내 불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다. 더 좋은 불자가 되고 싶다. 이미 하고 계신 보살님들이 부럽고 존경스러운 까닭이다. 나의 기도들이 모여서 나 같은 방황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진정으로 불공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이 이토록 행복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





육도ﷺ 가운데 가장 힘든 삼악도는 지옥뼈짜 아귀፥ 축생률보이 있습니다. 지옥은 일반적으로 전생해보에 악한 짓을 많이 한 자가 그 과보로 태어 나는 고통스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지옥에 가기를 원 하지 않으며 무서워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기 싫 고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① 지옥

지옥은 자신이 현생에서 지은 죄대로 가는 곳이라고 하니 내가 지금 까지 살면서 잘못 지은 것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이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

지옥은 자신이 지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니 생활 가운데 항상 조심 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자제하게 됩니다.

함부로 말하여 수도 없이 구업을 지은 죄로 사방이 가로 막히고 빠져 나갈 길이 없는 곳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상상만으로 도 끔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생에서 큰 고통을 겪어봤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의 세계를 경험을 해 본 사람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바르지 않은 일로 큰 고초를 당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지옥이겠지요.

지금 몸과 마음이 고달프고 고민 속에 빠져 있다면 지옥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②아귀

아귀는 목마름, 배고픔 등의 고통이 있는 세계라고 합니다. 아귀의 세계는 탐욕이 많은 자가 죽은 후에 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귀하면 입이 아주 큰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얼마나 먹고 싶은 것이 많으면 저렇게 입이 클까? 그큰 입으로 먹을 것이 많이 들어가면 다소 화는 시킬 수 있을까? 괜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다고 하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픔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허겁지겁 먹어대기도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필요합니다. 과식과 과욕은 금물입니다. 그러나자 신이 다 먹지도 못하면서 필요이상으로 챙겨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져간 음식은 결국엔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립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도 적당히, 물건에 대한 욕심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적당한 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욕심 때문입니다.

이 아귀의 세계는 늘 배고픔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계속 먹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지장경』에 보면, 살았을 때 평소음식에 절도麻다 없으면 죽어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목에 병이 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먹을 때는 품위 있게 먹고, 남을 배려하여 적당히 자신의 몫만 가져가서 먹고, 물건과 물건에도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 다면 아귀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③ 축생

축생은 짐승의 몸이 되어 괴로움을 받는 세계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축생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짐승으로 태어날까' 하고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내가 토끼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두려움과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도 두려움에 도망 다니다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축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여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 과보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이겠지요. 지혜롭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자비 속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거기에는 커다란 업경대 **** 가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염라대왕이 망자가 갈 곳을 결정한다고 하니 내 삶이 업경대에 어떻게 비쳐질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꼭 죽어야만 지옥이나 아귀, 축생의 세계로 가는 것은 아니라 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면 그것이 지옥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옥에는 전쟁이나 사건사고가 있고,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 다. 그리고 과도한 생존경쟁, 취업, 승진 등의 지옥세계가 있습니다. 교 통지옥, 입시지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그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사는 것 보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주위를 돌아봅시다. 주위가 훤히 보이면 좀 더 나은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이응희(李應禧)

1579 - 1651 조선 중기의 문신



鳴泉下谷口 不捨暮朝催 亂響隨風聞 寒聲帶月來 長搖愁客夢 頻擺墨翁懷 萬古流無盡 만고류무진 人生閱幾回 인생열기회

명천하곡구 불사모조최 난향수풍문 한성대월래 장요수객몽 빈파묵옹회

샘물이 졸졸졸졸 골짜기를 내려와 밤낮을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하누나 요란스런 울림이 바람결에 들려오고 차가운 개울소리 달빛을 안고 와서 시름겨운 나그네의 꿈을 오래 깨우고 늙은 시인 가슴마저 자꾸 흔들어대네 이렇듯 만년세월 흐르고 흐르면서 하많은 인생살이 얼마나 보았을까

「옥당사진(玉潭私集)」「샘물[流泉]」

비단 같은 금강難의 유장한 물길도 기실 그 시위嫌은 '뜬봉샘'이라는 작은 옷달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철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어 느새 첫 실개천인 '강태등골'을 만나고 다시 길을 재촉해 '수분천'을 지난 후 여러 지천과 합류하면서 비로소 금강으로 흘러듭니다. 그 뒤로도 물 길은 오랫동안 이어져 옛 백제 땅을 굽이굽이 돌다가 마침내 서해 군산 앞바다의 품에 안기고서야 천리 머나먼 대장정을 마칩니다.

이렇게 물은 반도의 산맥을 따라 수만 년을 굽이돌아 흐르면서 물고 기와 새들의 고향이 되어주었고, 산과 숲과 들의 심장에도 말없이 스며 가서 그 안의 생명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왔습 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나 그 주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며 풍요로운 물 의 축복 속에 어우러지고 부대끼고 울고 웃으면서 강물 같이 유장한 이 야기를 써왔습니다.

반면에 세계 최대 습지 브라질의 판타날과 아시아의 대평원 몽골 초 워은 우리에 비해 훨씬 더 절박합니다. 그들의 삶은 우기가 만드는 초워 과 황량한 건기의 사막으로 양분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놓 이는 건기가 되면 동물들은 모래바람을 뚫고 물웅덩이와 초지를 찾아 필사의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판타날의 목동 판타니에로도, 몽골의 유 목민들도 구름과 비와 강과 호수로 변모하는 물의 순환, 그 위대한 여정 을 따라 질서에 순응하며 고난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不可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한다[知者樂水]'고 공자가 말한 것도 지혜로 운 자의 삶이 물의 속성을 닮았으며, 늘 물에게서 지혜를 배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물은 순리를 따르는 합리성과 아래로 내려가는 겸 손함과 밤낮을 쉬지 않는 근면성과 먼저 가려고 다투지 않는 배려심과 채운 뒤에 흐르는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기르지만 자랑하지 않는 덕스러움과 부딪쳐도 화내지 않는 인내심과 떨어질 때 주저하지 않는 용맹과 중도에 꺾이지 않고 끝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강인함을 지녔습니다. 노자가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上善若水]'고 한 것도 이러한 무위無의 자연스러움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늘 물처럼 살라고 이르는데, 자유로이 흘러가라 하는데, 공존이 아니라 정복을 택한 자본은 어느새 보*의 수문 안에 강물을 가두고 생명이 회귀하는 길마저 끊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마음 속 시원의 강물도 흐름을 멈추고 온통 검푸른 녹조로 뒤덮인 지오래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부신 햇발 아래 빗살치는 유년의 꿈이 자라던 강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정말 우리는, 달빛 머금은 계곡 물소리를 실컷 들으며 가슴으로 쏟아지는 별을 헤다 잠들던 여행이, 아이들의 또 다른 삶의 여정을 밝히는 영혼의 안식이 되게 하지 못한 채, 매일매일 들이치는 차디찬 일상의 순서와 희박한 생존의 굴레 속을 반복 질주하며, 영혼을 잠식해오는 메마른 불안과 두려움에 뒤척이거나 혹은 허허로운 갈망에 목말라하면서 끊임없는 탐닉과 순간의 욕망들을 소비하고만 있을까요?

그리하여 결국 영혼이 고갈되어버린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삶도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시리게 자각하는 일입니다. 길을 떠난 순례자들이 배낭을 줄이려고 짐을 버리듯, 등이 휠 것 같은 생존의 무게 가운데 덜 필요한 것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일입니다. 결국 삶은 '만나고 사랑하고 비우고 작별해가는 여정'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디딜 수 있는 오늘 이 작은 발걸음에 감사하며 햇살에 몸을 맡긴 채 충만한 풍경과 계절 속을 길동무와 함께 걷다가 마침내 다다른 바다에서 황혼을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일몰을 마주한 후, 나도 모르게 시원의 샘물 같은 벅찬 눈물이 솟아오를 때, 문득 '살아 있는 나날은 모두 수례'임을 깨닫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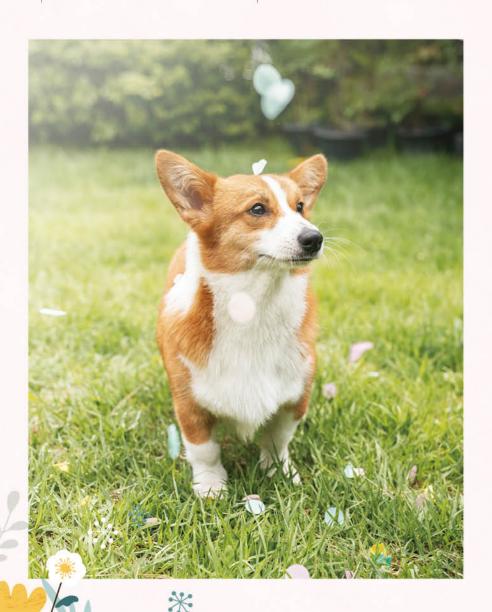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이기찬 고전문헌번역실장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권도형 닥터펫동물의료센터 원장 수의내과학 석사 수의사



중성화수술이란 생식능력을 없애는 수술입니다. 암컷 강아지,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수술 시 복강

대보내의 난소와 자궁을 모두 제거하게 됩니다.

암컷 강아지와 고양이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자궁축농증, 유선종양이라는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선종양의 경우 '첫 생리' 이전에 중성화수술을 하면 97%까지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에 암컷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중성화수술을 하고자합니다.

또한 강아지를 여러 번 키워보셨던 분들 중 예전에 키웠던 강아지가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았었고, 자궁축농증이라는 질병으로 소중한 강아지와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궁축농증이라는 질병의 무서움, 위험성을 크게 생각하시기에 다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성화수술을 빠르게 하고 싶어 하신답니다.

암컷 고양이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의 경우 발정기 때 고양이들이 들려주는 울음소리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고양이들의 발정은 2~3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고양이의 울음소리에 시달려 힘든 경우가 많고 이런경우에도 중성화수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컷 강아지, 고양이보다 암컷의 경우 중성화수술 이후 발생 가능한 질병의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강아지, 고양이가 질병이 걸리진 않기에, 여전히 중성화수술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한 번도 동물을 키워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변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한 뒤 '중성화수술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발생을 확률적인 부분으로 설명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신비는 아직 밝혀지지 않 은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아이들의 행동변화와 건강변화를 조금 더 빨리 눈치 챌 수 있게 되었고,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에 진단을 내리고 치료에 성공하는 사례가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꼭 어릴 때 필수적으로 중성화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답니다.

반려견들의 기대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노령견들의 종양이 이제는 더 이상 흔한 질병이 아니게 되었고, 항암치료를 받는 강아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암치료 전 암컷 강아지, 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을 반드시 해주시라고 말씀드린답니다. 항암치료를 통해 체내 면역력이 저하되면 높은 확률로 자궁축농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선 중성화수술을 먼저

권유 드리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성화수술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왜 중성화수술을 하려고 하는지?' 여쭤본 후에 보호자님께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 리는 편이랍니다.

요즘에는 길고양이들의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길고양이를 보호해줘 야 한다.'라는 의견과 '말썽만 일으키고 시끄럽기만 한 아이들을 어떻 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완전히 대립되어 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대책으로 나라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말 무분별한 번식을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중성 화수술이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련논문들 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중성화수술 후 적극적인 입양이 꼭 필요한 부분 이고, 중성화수술이 된 고양이의 비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야 그 개 체수의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답니다. 』



위드다르마 41

전혜선 벽룡사교도





저는 총지종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마음이 풍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총지종에 처음 입교하게 된 계기는 사소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스물아홉인가, 그때에 한복을 입을 일이 있었는데 간단한수선이 필요해서 한복집을 찾았습니다.

'은혜는 평생을 잊지 말고, 수원ண은 잠시라도 가지지 말라.'

이 글귀가 벽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크지 않은 글씨로 써진 문구였는데 어떻게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읽는 순간, 화살에 꽂힌 것 마냥 구절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또 다른 구절이 있었습니다.

'수원은 수원으로 풀리지 않고, 은혜를 생각할 때 풀리니라.'

이 구절 역시도 얼마나 좋던지 읽는 내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정신이 번쩍 들고 두 손에서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당장에 저 글귀를 베껴 써서 저의 집 방마다 붙여놓고 싶었습니다. 글귀에 정신이 팔린 저를 보고, 한복집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 글이 그렇게 마음에 닿아?"

"네, 정말 귀중하고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여전히 글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제게 언니는 언제 한 번 시간을 내보는 게 어떠냐고 했습니다.

"시간이요? 왜요?"

"내가 더 좋은 법을 가르쳐줄게."

그렇게 염주를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옴람, 옴치림, 옴마니반메홈이 쓰인 노트도 받았습니다. 합장을 하고 불공을 하는 걸 배우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처음 발음해보는 생소한 진언과 손짓임에도 하나도 낯설지가 않고 마음에 속속 박혔기 때문입니다. 나무삿다남 하며 준제진언을 108번 해야 하는 불공과 매일 하는 정송에 대해서 배우고 익혔습니다.

당시 저는 한 상에 60원 하는 밥장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장사에 대한 의욕은 넘치지만 요령이 없어서인지 늘 피곤했습니다. 그래서인 지 점심 장사때 손님 치르고 방에 앉아 염주를 돌리고 있노라면 그렇게 잠이 쏟아졌습니다.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병행하느라 더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염주를 쥐고 앉으면 병든 닭처럼 졸면서도, 불공을 하는 게 좋고 또 든든했습니다.

그때는 새벽 4시가 되면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사이렌이 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얼굴만 대충 닦고 절에 갔습니다. 새벽녘 다른 신도들의 집 창문을 서로서로 두들기며 새벽잠을 깨워서 함께 가서 마음을 닦았습니다. 새벽바람이 추우니 두꺼운 옷을 있는대로 껴입고 불공을 마치고 나면 식당 장사에 필요한 장을 보러 가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생활 속에 용맹정진의 시절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저와 함께 정진했던 보살님들이 지

금의 총지종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큰 절을 몇 번 다녀봤으나 고작해야 1년에 한 번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에 가는 게 다였습니다. 그때가 29살에서 30살이었으니어디스님의 법문 같은 것이 귀에 잘 들어올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저우르르 몰려가서 연등에 불을 붙이고, 밥을 얻어먹은 다음, 산에 핀 꽃과 나무를 구경하고 내려오는 게 다였습니다. 그러다 총지종 스승님의법문을 들었는데 눈과 귀와 마음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점심나절에 법문 시간이 있으면, 식당의 아주머니께 아무리 식당에 손님이몰려도 부르지 말아 달라고 누누이 당부한 다음 법문 말씀을 경청하는데 몰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스승님의 가르침이 몇 개 있습니다.

'남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나 역시도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없다. 함께 구렁텅이를 향해 몸을 움직여야 남을 빠뜨릴 수가 있는 법 이고, 자칫하며 나 역시도 구렁텅이에 빠지기 십상이다.'

'초와 향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남을 이롭게 한다. 향은 자신을 태우며 남에게 향기로운 향을 주고, 초는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어 남을 밝게 해준다.'

이 말이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생전 그런 가르침을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하다가 배우니 소중한 지혜를 얻은 듯했습니다. 그렇게

총지종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다른 종교는 물론 다른 절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살다가 만나는 고난에 있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회하고, 뉘우치고, 깨쳐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어리석은 중생이 바로 우리인간인 듯합니다. 총지종을 만나서 마음을 닦은 후 저는 남의 탓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식 원망, 부모 원망, 남편 원망도 일절 하지 않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어봐야 하등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법도 총지종이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보시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보시가 될 수 없습니다. 식당 일을 할 때에도 제가 손님의 반찬을 더 챙겨줄라치면,

'저 사람이 다음에도 오기를 바라서 그러는 건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단연 '아니오.'입니다. 보시란,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저렇게 하면 저런 식으로 되돌아오겠다고 계산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계산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은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던 바가오지 않아 서운함이라는 안 좋은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보시를 할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고마운 마음 하나로 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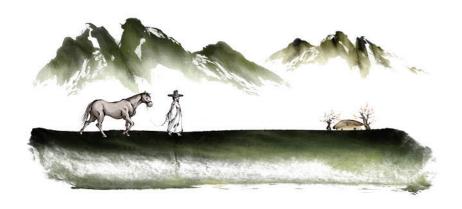
합니다. 그래서 회사라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으로 터득한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저는 총지종을 만난 후, 총지종을 제 인생의 동반자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한결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총지종 안에서 귀중한 법문을 만나고, 지혜를 얻어 보다 마음 편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길 서원합니다. ▲



대복과 오리정 구렁이

보현 전수 실보사전수



전라남도 남원 고을에 대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힘이 세고 매우 용감하게 생긴 대복은 말을 타고 매일 전주 관가에 공문서를 전달하는 것이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주 관가에 서류를 전하고 오는 길이 늦어져 어둑해진 밤길을 마주하게 되었다. 근처 숙소에 하룻밤 묵어가야 안전할 터인데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에 다시 갈길을 재촉했다.

춘향과 이도령이 이별했다는 오리정 고개에 막 다다랐을 때였다. 주 위는 조용하여 말발굽 소리만 요란할 뿐인데 어디선가 '대복'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대복은 말의 속도를 줄이고 사방을 두 리번거리며 귀를 기울였다.

"대복아! 대복아!"

분명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틀림없었다. 발을 멈추고 소리 나는 쪽으

로 향해 고개를 돌리던 대복은 바로 어깨 너머에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만큼 큰 구렁이가 두 눈에 시퍼런 불을 켜고 혀를 날름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용감하기가 따를 자 없는 담이 큰 대복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무렇지 않은 듯 차분히 그것에게 말을 걸었다.

"그래, 무슨 연유로 남의 바쁜 발걸음을 지체케 하는가?" 똬리를 스르륵 푼 그것은 대복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그 용기를 비웃 기라도 하는 듯 쇳소리를 내며 대꾸하였다.

"나는 백년간이나 이 오리정 연못을 지켜온 '지킴'이다. 이제 그만 이 흉한 탈을 벗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래서 오늘 밤 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니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고 너는 이 연못의 지킴이가 되어 줘야겠다."

순간 대복은 허리에 찬 칼을 뽑아 들었다. 그때였다. 허공에서 한 줄 기 빛이 일더니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대복과 '지킴'이 사이를 가로 막았다. 관세음보살은 그 둘에게 법음을 전했다.

"오리정 연못의 지킴이는 듣거라. 대복이는 본인의 심성도 착하지만 그 부인 불심이 남편을 위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성껏 시주하니 그 정성과 공덕을 보아 해치지 않도록 하여라." 팽팽히 다투던 둘의 관계에 자비로운 바람이 내려앉자 둘 또한 서로에게서 살기를 거두었다. 홀연히 사라진 관세음보살의 빈자리를 힘없이 바라보며 지킴이는 대복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부인의 공덕으로 오늘 목숨을 건지었소. 그러나 나는 이 흉

한 탈을 벗을 도리가 없어졌소. 부디 나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해 주길 바라오."

축 늘어진 채로 다시 연못으로 들어가는 지킴이를 지켜본 대복은 말을 달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늘 그렇듯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대복은 쉬지 않고 아내에게 달려가 절에 시주한 것이 있느냐고 다짜고짜 물었다. 평소 절에 가는 것을 마땅찮아 하던 대복이 시주 이야기를 묻자 아내는 내색을 꺼렸다. 자신의 성급함을 깨친 대복은 잠시 숨을 돌리고 아내에게 오리정에서 일어났던 아찔했던 사연을 들려줬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는 여러 차례 관세음보살을 뇌이면서 부처 남께 감사했다. 그리고 대곡사에 쌀 30석을 시주하고 삼칠일 기도를 올렸으며 어제가 바로 회향일 이었음을 알려주었다. 그날부터 대복은 착실한 불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큰 은혜를 갚고자 낡은 대곡사 법당 중창불사를 시작하였다. 이에 법당은 새로 반 듯이 지어졌고 낙성식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복이는 신도들과 축하 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법당을 새로 짓게 된사연을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피에 감탄을 연발하였다. 이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원부사가 좌중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듣고 보니 부처님의 가피가 진실로 하해와 같이 놀라울 뿐이요. 더욱이 그대 부인의 정성은 더욱 감동스러우며, 부처님이 계신 훌륭한 법당을 새로 지은 그대의 불심 또한 가상타 아니할 수 없소. 이런 불심과 사연을 후세까지 기리기 위해 이 절 이름을 대곡사에서 대복사로 바꿔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주지스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주지스님 또한 흔쾌히 동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부사는 대복사 라는 현판 글씨를 썼다.

그 후 부부는 오리정 지킴이가 사람으로 환생하길 기원하는 백일기 도를 올렸고, 기도를 마치는 날 밤 꿈에 지킴이를 만날 수 있었다.

"고맙소, 그대 덕에 나는 남자로 태어났소. 당신은 더욱 선업을 쌓고 정진하여 성불하길 나는 기원하겠소."

꿈에서 깬 대복은 부처님께 감사의 절을 거듭거듭 올렸다.

가족을 위해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감탄스럽습니다. 나보다 먼저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싶은 가족의 안녕을 바라는 그 마음은 아마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바라보는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예기치 않는 일들 속에 불편한 마음이 자리 잡아 그 기도의 성스러움을 깨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심과 자만심이 자리잡으면서 기도는 흐려지기도 합니다. 타인을 위한 기도가 성취되어 나에게 이런저런 득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는 옳지 않습니다. 기도는 걸림이 없어야 합니다. 욕심없는, 사심없는 기도를 하여야합니다. 어찌 기도에 욕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나의 욕심을 뺀 오롯이 상대를 위하는 기도가 바로 욕심을 뺀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을 빼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나또한 진정한 해탈의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위해 사심 없는 진실된 기도를 올려봅니다. 옴마니반메홈. ▲

국화 옆에서

- 서정주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국화의 시절인가 보다.

사원 안팎으로, 곱게 물든 단풍보다도 국화가 오히려 더 시선을 독차 지하고 있다. 서원당의 국화분은 처음 새끼손톱보다 작은 꽃봉오리를 맺고 와서는 갈수록 꽃잎이 흐드러지고 풍성해지는 모습이, 마치 갓 시집 와 수줍던 새댁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잘 넘기고 기품 넘치는 안방마나님이 된 듯 한껏 여유롭게 불단위를 지키고 있다.

마당의 샛노랗고 하얀 소국은 화려하지 않지만 인정스런 이웃처럼 정겹고 따스한 웃음을 머금고 있다. 사원이 워낙 언덕진 곳에 위치한 탓에 노소를 막론하고 보살님들께서 올라올 때마다 숨을 헉헉거리게 되는데 요즘은 환히 반겨주는 소담스런 그 얼굴들이 있어 그나마 작 은 보답이라도 드리는 것 같아 정말이지 기특스럽다.

충충이 쌓인 돌 틈, 그것도 뿌리내릴 흙이 넉넉지 않은 듯하여 내심 큰 기대를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 비웃기라도 하듯 올망졸망 이쁜 꽃 을 피웠다.

종종 일부러라도 차 한 잔을 들고 밖으로 나가 잠시나마 맑은 하늘 과 바람 선선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어 얼마나 고 마운지.

덕분에 안분지족裝分째의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된다.

누구에게나 삶은 나름의 고단함과 묵직함을 가지고 흘러갈 것이다.

늘 무엇엔가 안달하게 되고 조바심 내기도 하면서…….

하지만 소소한 느낌이 주는 행복이 어쩌면 삶을 더 풍요롭게 할지도 모른다.

활짝 핀 국화 옆에서, 이런 충만함으로 가을은 더 깊어간다. ▲

계절에 어울리며 계절 따라 마시기 좋은 차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교도



() 국화차

차는 식사 후나 여가에 즐겨 마시는 기호음료를 일컬어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차나무의 순이나 잎을 재료로 해서 만든 마실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차를 대신해 마시는 여러 음료 에도 '차'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철에 따라 좋은 농산물이 풍부하여 특 정 농산물들은 녹차를 대신해 활용되어 인삼차, 매실차, 쑥차, 솔차 등 마실 거리를 널리 알려 차라는 명칭으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 절마다 각각의 적합한 효능으로 우리들의 몸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을 정취에 잘 어울리는 국화차와 환절기 피부미용에 탁월한 감잎차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국화는 동양에서 재배하는 관상식물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꽃이자 사군자의 하나로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국화차를 '신논 봉초경'에서는 성품을 기르는데 좋은 차이며 특유의 향과 빛깔, 독특한 맛을 가을을 느끼고 품기에 손색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화차는 예로부터 꾸준히 마시면 불로장수 한다고 전해지며 눈 건 강에 좋고 심신 안정, 두통, 신경통 등 뇌 건강에 좋으며 기침, 가래, 비염 등 각종 기관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화차에는 대표적으로 콜린과 비타민 A, B, 등의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작용으로 피부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 보습에 필수적인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국화차를 마시게 되면 뇌를 활성화시키고 뇌의 퇴화 진행을 늦춰줌으로써 기억력 향상과 건망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특히 최근에는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콜린 성분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함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국화차는 10월과 11월 사이에 온전한 모양의 국화를 정성스럽게 따서 건조시켜 만듭니다. 건조시킨 국화차는 90℃ 정도의 뜨거운 물을 사용해 우려내야 하고 1인분으로 3~5개 꽃송이를 넣어 2~3분 정도

우려내어 마시면 되는데 취향에 따라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면 됩니다.

또한 잘 말린 국화##의 꽃잎으로 꿀과 함께 잘 버무려 3~4주일 밀봉해 두었다가 끓는 물에 꿀에 버무린 꽃잎을 타서 마시는 전통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국화차는 여러 번 우린 후에도 풍부한 잔향이 남아 있어 여운을 즐기기에 좋은 차이며 투명한 다기를 사용하면 아름다운 국화를 감상하면서 가을을 마시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감잎차는 싱그러우면서도 달콤한 과일 향을 지녀 가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인 감을 가을에 수확하는 것에 비해 6월에서 8월 사이에 채취한 어린 감잎을 따서 깨끗이 닦아 그늘에 말린 후 잘게 썰어서만듭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의 감잎에는 귤보다 2~3배나 많은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잎차에 함유된 비타민C는 고온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 뜨거운 물에 우려내도 영양소의 파괴가적습니다.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피부 미용에도 좋고 감잎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부종에 의한 부기를 빼주며 몸속 노폐물을 배출해주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A의 효과를 나타내는 카로틴이 많아 감기예방과 여성의 생리에 좋고 설사와 배탈을 멎게 하는 효과가 있어 환절기에 섭취하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산성인 탄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약알칼리성을 띄는 약초와 함께 마시는 것에 주의하며 과다 섭취 시 변비가 심한 분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화차는 80℃ 정도의 따뜻한 물에 1~2스푼 넣어 2~4분 정도 우려내 마시는데 구수한 맛에 연녹색을 띄며 물을 조금 더 식혀서

(60~70℃) 오래두면(10분) 단맛이 더 잘 우러납니다. 홍시, 곶감, 과일 등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는 감의 효능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감나무 잎인 감잎차의 효능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계기로 몸에 좋은 감잎차를 찾아 마셔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찬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랗고 붉은 빛깔을 뽐내는 이 가을에 훈 훈하고 따뜻한 차담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봄은 어떨까 권해봅 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차 한 잔은 삶의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끝으로 차의 효능에 대해 동의보감에 기록되어 있는 차의 구덕[□]
말해 볼까합니다. ▲

차를 마시면 얻어지는 아홉 가지 더

첫째, 머리를 맑게 해주고

둘째, 귀를 밝게 해주고

셋째, 눈을 맑게 해주고

넷째, 밥맛을 돋우고 소화를 촉진시켜 주고

다섯째, 술을 깨게 해주고

여섯째, 잠을 적게 해주고

일곱째, 갈증을 멈추게 해주고

여덟째, 피로를 풀어주고

아홉째, 추위와 더위를 막아줍니다.





가을은 하늘이 높고 푸르른 것이 꼭 부처님을 만난 듯 해맑아지는 계절이 아닌가 싶다. 사람의 마음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계절에 정각 사에서 합창제가 열렸다.

2018년도 10월 26일 6시, 서원당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행사 전날부터 부산 경남교구의 스승님들이 패기와 열정으로 꽃꽂이, 도량청소 등을 하시고, 행사 후에는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마무리를 하시는 걸 보았다.

스승님들이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며 정성껏 행사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스승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작은 손이나마 행사에 힘을 보태었다.

평소에 북아트를 배우는데 수업 중간중간 선생님이 종이로 예쁜 것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종이접기 부스를 하기로 하였다. 만화경, 머리핀, 냉장고 부착 메모 꽂이, 이 세 가지를 준비했다.

내가 세 가지를 외워서, 참여하는 여러 사람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런데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어 강사 선생님과 같이 하게 되었다.

나는 만드는 과정을 매일 외우고 나름 2주일 정도를 열심히 준비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은 꿈을 꾸었다. 나무에 연꽃이 가득 피어 있지 않은가! 엄마에게 여쭈어 보니 종이로 꽃을 만드니 나무에 연꽃이 피는 그런 꿈을 꾼 듯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좋은 꿈이라 하셨다.

행사 전에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했다. 그런데 행사 당일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닌가. 야외에서 부스를 하는데 좋지 않은 여건이다.

하지만 나는 빗속을 다니며 보살님들께 홍보하면서 적극적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그나마 계속해서 자리를 채워주시는 보살들이 계셔서 다행이었다.

내가 담당한 부스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던 건 만화경이다.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이리저리 돌려보면 만 가지의 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손자 손녀가 있는 보살님들이 만들어서 선물 한다고 정성껏 만드시는데 보기가 좋았다.

만들기 어려워하시는 보살님은 그냥 가져가고 싶어 하시기 도 했다.

걱정했던 바와 달리 행사를 잘 마쳤다.

지금 생각해보니 연꽃 꿈으로 부처님께서 나를 격려와 힘을 주신 게 아닌가 한다.

이번을 계기로 부처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부처님 일을 더 성심껏 해야겠다. ▲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가다(2)

우연 자석사 교도

파안에서 4시간을 달려 짜익티요 숙소에 도착했다. 밍글라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니 안내하는 여종업원은 부끄러운 듯 조용한 미소로 답을 대신하였다. 여행자들이 말하는 매력적인 미얀마의 미소였다. 미얀마의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과 넓은 정원에는 열대성의 나무와 화초가 어울려 이국 목표의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정원의 벤치에 앉아 준비해간 소주를 나누어 마시며 여행자의 고독한 마음을 달래었다. 짜익티요는 '수행자의 머리로 운반한 탑'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다음날 황금바위 사원을 보기 위하여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황금바 위 사원은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만달레이의 마하무니 파고다와 함께 미얀마 불교의 3대 성지로 꼽히는 곳이다.

출발지인 킨푼 마을에서 화물칸을 개조한 덤프트럭 버스에 올라 해발 1,100미터의 짜익토 산을 향했다. 길은 좁고 험하였으며 운전사는 마치 곡예를 하듯이 내 달렸다. 승객들의 안전은 처음부터 안중에 없는 듯 보였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의 안전을 부처님께 맡긴 것일까.

한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황금바위는 산 정상의 안개 속에 아스라하게 몸을 감추고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바위와 그

위에 세워진 탑 사이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 머리카락의 힘에 의해 무게가 46톤에 이르 는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 지않고 버틴다고 했다.

그동안 부처님의 진신사 리를 모신 탑이나 적멸보 궁을 찾은 적은 있으나 부 처님의 불발이 모셔져 있 다는 것은 처음이고 뜻밖 이었다. 무엇보다도 부처 님의 사리가 부처님의 사 후의 것이라면 황금바위에



모셔져 있는 불발은 부처님 생전 # 비의 것이라는 것에 놀라웠다.

황금바위 출입구에서는 여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황금바위에 금박을 직접 붙이며 기도를 할 수 있지만 여자들은 황금바 위를 만져서도 안 되고 기도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했 다. 과연 불교의 평등적 세계관에 비추어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고 개가 갸우뚱 해졌다.

황금바위 사원을 내려와 오후 2시에 출발하는 바고행 버스를 탔다.



운전석 전면에는 부처님의 대형 사진이 덩그렇게 붙어 있었다. 부처님을 마주보고 응시하면서 가는 것이 아무래도 불편해 눈은 자꾸만 차창 밖을 바라보다가 스마트폰으로 옮겨 갔다. 우리나라의 유명 정치인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했다는 우울한 뉴스가 그 속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평생 노동운동과 서민들을 위한 대변자였음을 애도하고 있었다. 생사불이 ###로 대신하고 눈앞의 부처님 사진을 바라보며 명복을 빌었다.

바고는 8세기경 몬족이 세운 한타와디 왕국의 수도였으며 당시 화려한 불교문화가 이 땅에 꽃을 피웠다고 한다. 지금은 인구 5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가 되어 있다. 다음날 새벽 길거리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확성기 소리에 깜짝 놀라 잠을 깼다. 무슨 독경소리인 것 같기도 하여 한참이나 귀 기울여 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스님들에게 바치는 도네이션이라고 했다.

아침부터 서둘러 쉐딸라웅 파야에 도착했다. 거대한 와불 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길이가 54.8미터, 높이가 16미터인 거대한 와불째 은 오른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고 바닥에 누운 자세로 높은 베게를 베고 있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흘렀다. 미얀마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들기 전날 휴식을 취하던 모습이라고 했다. 죽음 앞에서 미소를 띨수 있는 경지는 과연 어떤 것일까. 새삼 불상이 더 높아 보였다.

짜익푼 파야로 이동했다. 야외에 30미터 높이의 사각형 기둥을 중심으로 4면에 거대한 좌불 상이 조각 되어 있었다. 불상들은 과거 삼불인



구야함모니불, 구루손불, 가섭불, 그리고 현존불인 석가모니불이라고 했다. 미래불은 왜 빠졌을까 하는 궁금증을 뒤로 하고 쇄모도 탑으로 향했다.

쇄모도 탑은 "양곤에 쇄다곤이 있다면 바고에는 쇄모도가 있다"고 할 정도로 바고를 대표한다고 했다. 탑의 높이가 114미터로 양곤의 쇄다 곤 보다 14미터가 더 높다는 것이다. 비가 내리고 비수기 탓인지 사람 들은 별로 눈에 띄지를 않고 한산하기만 했다. 간간히 론지를 예쁘게 차려 입은 젊은 아가씨 몇 명이 우산을 바쳐 들고 맨발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정겨웠다. 탑의 한쪽에는 수령이 몇 백년은 되었음직한 아 름드리 보리수나무가 탑의 전설과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듯 묵묵히 지 켜보고 서 있었다. 나는 비를 맞으며 화려하고도 장엄한 황금 탑을 천





천히 돌면서 합장 기도를 했다.

바고 투어를 마치고 오후에 양곤 행 미니버스에 올랐다. 양곤이 가까워지면서 도로는 넓어지고 자동차 통행량은 늘어났다. 도로옆 건물에 '코리아 패션'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 왔다. 순간 한류 열풍의 영향이아닐까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양곤 북부 앙 밍갈라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만달레이로 가는 직행 버스를 타기까지는 세 시간을 넘게 기다려야 했다. 미얀마에서는 장거 리 이동은 대부분 야간 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밤 10시가 되자 버스 는 출발했고 안내양은 담요 한 장을 갖다 주었다. 그 담요가 장기 여행 자의 피로와 추위를 포근히 감싸주었다. 혼잡한 양곤시내를 벗어나자 탁 트인 고속도로가 시작되었다. 양곤과 만달레이를 잇는 고속도로가 미얀마의 유일한 고속도로라고 한다. 도로 수준은 우리나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었다.

버스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달렸다. 얼마를 달렸을까. 비몽사몽간에 도착한 곳은 휴게소였다. 시간은 다음날 새벽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휴게소는 마치 거대한 야시장을 방불케 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리를 잡아 식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생존의 현장이었다. 화장실에서는 사용료 이백 짯을 내어야 했다.

다시 버스는 달렸다. 그리고 다음날 7월 27일 오전 7시 40분에 드디어 만달레이에 도착했다. 장장 10시간을 달려 왔다. 오전은 숙소에서 휴식을 갖기로 했다. 마치 A매치를 앞둔 국가대표 선수가 숙소에 여장을 풀고 내일의 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만달레이 2박3일의 여정은 그렇게 다가 왔다. ▲

· 불발 : 부처님의 머리카락

·생사불이: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 라는 불교적인 용어

도네이션(donation) : 기부, 기증

· 론지 : 치마와 비슷하게 생긴 미얀마의 전통 의상



그녀는 누구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르는가 (下) - 라푼젤

박현희 사회과 교사



남자는 긴 머리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머리를 기르고 싶어 한다

남녀를 막론하고 머리카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여자들은 머리카락에 더 집착한다. 남자들도 여자들의 머리카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길고 찰랑찰랑한 생머리를 가진 여성은 남성들의 변치 않는 로망이기도 하다. 궁금하지 않은가? 왜 사람들은 머리카락에 집착할까? 특히 여자들의 긴 머리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진화심리학은 여기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해답을 제공한다. 인류의 오 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른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인간 역 시 자신의 유전자를 대대손손 이어가기를 열망했다. 자신의 유전자를 물 려주는 것은 유한한 생명이 끝나도 생명을 이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종족 보존의 본능에 따라 이왕이면 건강한 모 체를 찾아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런데 어떻게 모체가 건 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

머리카락은 인간의 신체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주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신체 부위라고 한다. 건강한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윤기가 흐르지만 병을 앓는 사람들의 머리카락은 그렇지 못하다. 병을 앓는 동안 신체는 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몸에서 이용 가능한 영양소를 모두 끌어들이는데, 이때 머리카락은 신체가 병을 이기기 위해 영양소를 끌어다쓸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부위이다. 머리카락은 생존에 필수적인 부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건강을 잃으면 가장 먼저 머리카락이 윤기를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머리카락은 아주 천천히 자란다. 1년에 15센티 미터 정도? 그러니 여자의 긴 머리카락은 최근 몇 년간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선명한 척도가 된다. 남자들은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보며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고, 건강한 여성은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보여 줌으로써 자신의 건강상태를 과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 때문에 남자는 여자의 긴 머리를 좋아하게 되었고.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을 좋아하는 쪽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진화심리학의 설명이다.

이런 원리를 발전시켜 보면 나의 든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 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 가면서 전성기의 건강을 잃어버린 여자들은 구태여 머리를 길게 길러 자신이 별로 건강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광고할 이유가 없다. 머리를 짧게 잘라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은폐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남자들이 여자들의 짧은 머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내가 라푼젤이라면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라푼젤은 사실 혼전에 온갖 규범에 갇혀 사회적으로 유폐된 모든 처녀들에 대한 은유이다. 혼전에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갇혀 살며 머리카락이나 기르다가 결혼하고 나면 상대 남성이 내 머리카락을 타고 오르는 것을 감당하느라 머리 가죽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감내하며 사는 삶에 대한 은유.

인류가 진보라는 것을 해 왔다면 특수한 신체 부위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힘을 가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다. 생각만 바꾸면 되니까.

내가 라푼젤이라면?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에 대한 애착을 집어던질 테다. 길고 탐스러운 머리카락의 용도가 수컷을 꼬드기는 데 있음을 직시하고, 수컷을 꼬드겨서 내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헛된 꿈 따위는 내던 져 버릴 테다. 밧줄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여인을 얻겠다고 설쳐 대는 무

능한 왕자에게 머리카락을 내어 주는 고통을 감내하지도 않으련다.

나는 내 스스로 머리를 잘라 그 머리로 밧줄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로 근육의 힘을 기른 뒤, 머리카락 밧줄을 타고 유유히 탑을 빠져나가리라. 머리카락을 잘라 내어 한결 가벼워진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어 보며 새로운 생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리라. 혼자 힘으로 탑을 빠져나온 나인데, 다른 무슨 일인들 못할까. 』

- "백설공주는 왜 자꾸 문을 열어 줄까.



68 12월

화장실이면 어때!

- 아디아툼Maidenhair fern

이태용 원예교육가



변소와 화장실 사이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푸세식' 변소를 쓰던 어린 시절, 이 유명한 변소 귀신 이야기 때문에 늘 안절부절못했다. 변소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지던지. 볼일을 끝내자마자 후닥닥 방으로 뛰어 들어 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변소'보다는 '화장실'이 더 익숙한 요즘 아이들에게 변소 귀신은 아무런 공포감도 주지 못한다. 순식간에 물이 내려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깨끗해지는 변기에는 귀심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깨끗하고 쾌적한 지금의 화장실. 좋기는 하지만 뭔가 아쉬운 마음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단지 배설하고 씻어 내는 장소가 아니라 옛날처럼 재생산의 장소로 돌아올 수는 없을까? 아이들게도 재미와 상상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

발 내 고향은 열대 밀림

무미건조한 화장실을 살아 있는 곳으로 만드는 좋은 방법.

바로 식물을 살게 하는 것이다. 생명이 없던 곳에 생명이 살기 시작하면 그곳은 '무'에서 '유'의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삶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 화장실은 햇빛이 잘 안 드는 경우가 많다. 창문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조그맣고,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을 꺼두기 때문에 낮에도 컴컴하기 쉽다. 햇빛을 쬐어야만 살 수 있는 식물에게 화장실은 최악의 장소이다.

며칠은 그럭저럭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랫동안 살기는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식물을 고르는 것이다. 바로 아디안툼처럼….

원래 아디안톰 같은 고사리과 식물은 브라질을 비롯한 열대 아메리 카의 밀림이 고향이다. 늘 축축하고 햇빛이 잘 안 드는 밀림 속에서 까마득한 세월 동안 살아온 것이다. 덕분에 지금 아디안툼은 다소 빛이 부족한 곳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 올망졸망 줄기에 달라붙은 작은 잎들은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듯 까불며 장난을 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며칠이고 계속 빛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조금씩 잎의 빛깔이 흐려지다가 하나둘 시드는 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다 아디안툼 전체가 기운을 잃고 죽어 버릴 것이다. 결국 식물이라면 제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빛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식물에게 가장 중요한 광합성은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니깐.

따라서 아디안툼의 경우 적어도 일주일에 절반가량은 환한 거실에 놓아무어야 한다. 빛을 받을 때 비로소 열심히 영양분도 만들고 잎의 빛깔도 선명해지므로 화장실에서도 오랫동안 아디안툼을 즐길 수 있다.

▶ 우리 모두 일상을 싱그럽게

"안녕하세요?"

아디안툼은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인사를 건넨다. 인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쑥스럽다. 뭐라고 답인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적나라한 맨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기도 하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아디안툼의 자리가 익숙해질 때쯤이면 아디안툼만큼 좋은친구가 없다는 것 깨닫게 된다.

가족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 내 가슴 속에 꼭꼭 묻어 두고 싶은 이야기. 고해 성사하 듯 아디안툼에게 살짝 말해 볼까? 그러면 아디안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하고 격려해 줄 것이다.

"이제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귀신이 빨간 휴지를 내미는 스릴 있는 화장실은 못 되더라도 이 정도면 충분히 즐겁고 기분 좋은 화장실이 아닐까? 화장실의 아디안툼과 함께 우리 일상이 다시금 생기를 찾았으면 좋겠다. ▲



72 | 12월

법일 정사 ^{벽룡사주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깨를 날로 먹어보았다. 맛이 없었다.

그는 어느날 날깨를 볶아 먹어 보았더니 매우 고소하고 맛이 좋았다.

그는 생각했다.

"차라리. 깨를 볶아서 땅에 심어 키운 뒤에 먹으면 더 맛있 겠다."

그리하여 그는 깨를 볶아서 땅에 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볶은 참깨에서는 싹이 날리가 없었다.



어떤 상인들이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먼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바닷길을 잘 아는 항해사가 필 요했다.

수소문 끝에 노련한 길잡이를 구해 뱃길을 떠났다. 한 섬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 섬 제사장이 말하길 "당신들이 무사히 항해하기 위해서는 바다 에 인간 제물을 받쳐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상인들은 모여 의논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친구들이니 어떻게 친구 를 죽일 수 있는가? 생각해보니 저 길잡이가 제물로 적당하다.

그리하여 상인들은 노련한 항해사를 제물로 받치고 말았다. 제사를 마친 그들은 큰 바다에서 길을 못 잡아 갈팡질팡 헤매다 모두 죽고 말았다.

지금 눈앞의 이익만을 따를 것인가? 잠시만 눈을 감고 주위를 둘러보자. 그러면, 지혜가 일어날 것이다. ▲





명왕과 천신

明王·天

神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明 밝을 - 명

포임금-왕

天하늘-천

神 귀신 - 신

일반적으로 명왕과 천신은 분명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조선시대 밀교에서 이들 두 존격의 관계는 별다른 구분이 없었던 것 같 다.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교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존격을 명왕이 라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존격 을 천신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밀교경전이 성립되면서 다양한 존격이 등장하는 만다라에서도 명왕은 교령륜 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천신은 만다라세계를 수호하는 존격으로 등장하였다. 이와 같이 분명한 성격적 차이를 보이고 있는 명왕과 천신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동질적 성격을 가진 존격으로 받들어졌다.

그 존격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 편으로써 나타나기도 하고, 도량과 불법을 수호하는 존격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시대 건립된 전통사원에 안치되어 있는 사천왕과 금강역사, 그리고 신중탱화 중

의 예적금강은 명왕에 해당하며, 그 외의 범천, 제석천, 색건나천, 나라 연천 등은 천신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존격들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도량과 불법수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인도에서 성립된 경전 상에 등장하는 명왕과 천신 이외에 우리 나라의 토착신인 산신도 도량 내에 모셔져 있다. 이와 같이 산신이 사 찰에 모셔져 있는 것은 사원건립을 위한 토지를 수지한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밀교경전에서는 수행도량을 확보하기 위해 서 얻은 토지에도 신령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남의 토지를 범 하지 않고, 그 곳의 토착신을 위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행도량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아마도 조선 밀교에서 산신의 수용은 밀교적 관점에서 보면 토착신에 대한 배려이자 그 존격에 대하여 역할분담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밀교는 명왕이나 천신, 그리고 토착신을 아우르는 공존공생의 신앙체계를 확립하였다.

만약 이와 같은 상호공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명왕이나 천 신 같은 외래의 존격들은 우리민족의 정서 속에 자연스럽게 수용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

기특

奇特

춥 기특할 − 기 기특하다. 기이하다. 괴상하다

特특별할 - 특별하다, 뛰어나다, 달리하다

① 언행(言行)이 기이(奇異)하고 귀염성이 있음

② 말이나 행동(行動)이 기특(奇特)하고 특별(特別)함

「거참기특하군.」

언행이 생각 밖으로 기이하고 귀염성이 있을 때 칭찬하는 말이다. 이 말은 범어의 Ā śoarya 라는 말을 번역한 한자어로 불소행찬佛所行讚에 '미중유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특한 생각思이 일어나다.」라고 했으며, 현우경賢愚經에는 「여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실로 기특한 일이다.」라고 했다. 이로써 매우 드물고, 뛰어나고 신기한 것을 일컫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또 불교에는 세 가지의 기특한 일이 있다고 했다. (과거현재인과경)

그 하나는, 석존께서 많은 사람을 대하시되 그 낱낱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 불가사의한 대신통을 나타내어 일체중생과 삿된 외도 카道들을 바른 길로 귀의시키는 신통神通

기특이고,

두 번째, 붓다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일체의 법을 밝게 비추어 그 실 상을 다 안다는 혜심慧心 기특이고,

셋째는, 석존께서 낱낱 중생들의 영리함과 우둔함을 잘 알고 다 받아들여 그들의 근성에 따라 능히 개발하고 이끌어서 그들이 법에 따라 묘행을 닦아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섭수攝受 기특이다.

그래서 지금은 매우 탄복할 만한 일이나 수승殊勝한 일 등 남들이 감히 할 수 없는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는 말로 쓰게 되었다. ↓





지난 호 독자 솜씨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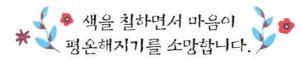






▲ 대전 **김정화** 님

▲ 부산 **이선화** 님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 됩니다.

80 | 12월

With Dharma 영원한진리와 함께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민두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종철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한미영	허지웅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총기47(2018)년 12월 1일

발 행 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__ . **발 행** 불교총지종

주 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 화 02-552-1080~3 팩 스 02-552-1082



겨울나기

- 도종환

아침에 내린 비가 이파리 위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어는 저녁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고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하늘과 땅에서 얻은 것들다 되돌려주려고 고갯마루 건넛산을 바라보는 스님의 뒷모습처럼 서서 빈가지로 겨울을 나는 나무들이 있다

이제는 꽃 한 송이 남지 않고 수레바퀴 지나간 자국 아래 부스러진 잎사귀와 끌려간 줄기의 흔적만 희미한데 그래도 뿌리 하나로 겨울을 나는 꽃들이 있다

> 비바람 뿌리고 눈서리 너무 길어 떨어진 잎 이 세상 거리에 황망히 흩어진 뒤 뿌리까지 얼고 만 밤 씨앗 하나 살아서 겨울을 나는 것들도 있다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 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아쉬움이다. 어느새 한 장 남은 달력. 새해에 꿈꿨던 희망들.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행복한 미소와 아쉬움의 눈물이 동시에 생각난다. 내게 주어진 작은 희망으로 12월을 마무리 해 본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업력에 따라 각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선업을 지은 사람은 즐거운 세계에 악업을 지은 사람은 괴로움의 세계에 이것이 마음의 비밀이고 업력의 불가사의이다

- 환당 대종사 -